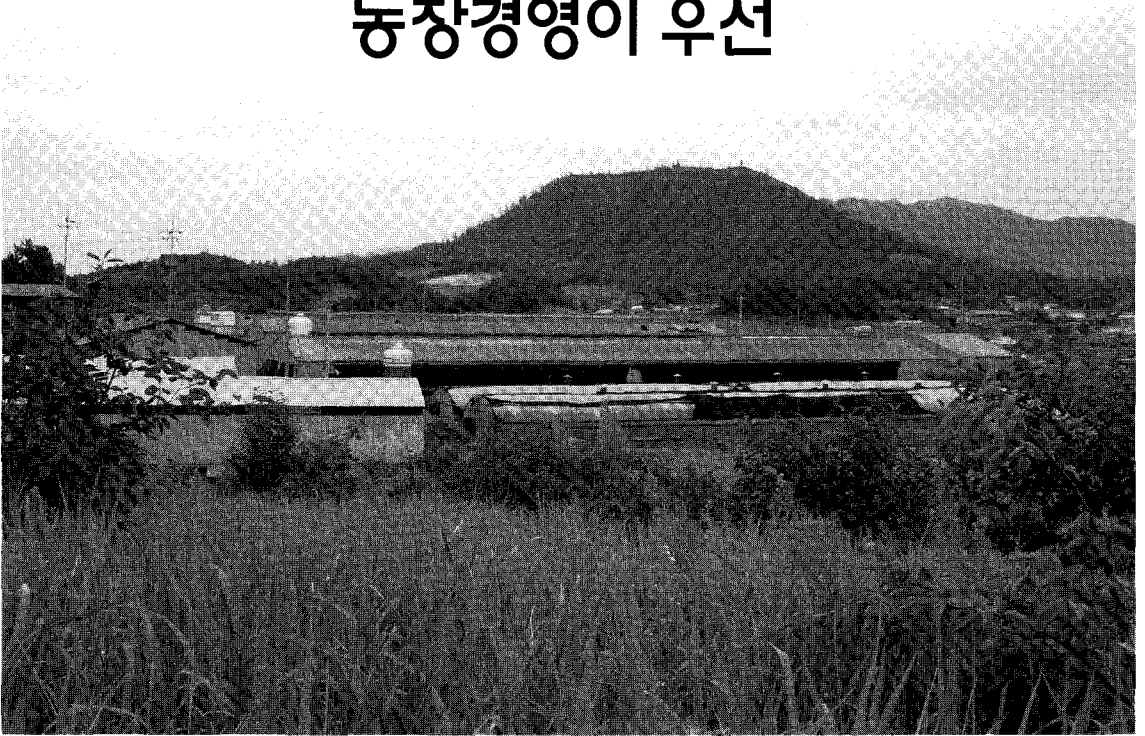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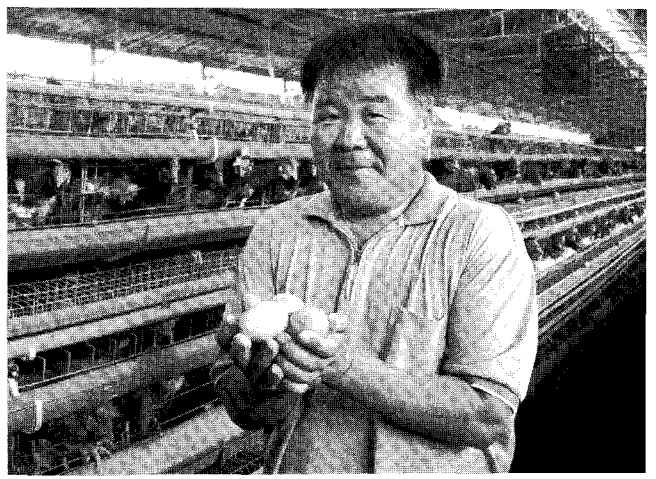
규모확대 보다는 내실 있는 농장경영이 우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에 위치한 배로농장 전경

10년만에 찾아온 지난 여름 무더위는 양계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단열과 환기를 완벽하게 한 농장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 자체의 온기로 계사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반응들이다. 혹서로 인해 전국적으로 20%정도의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난가도 8월 25일 현재 129원(서울경기 발표기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계란을 구하기에 급급한 유통상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 3차례에 걸친 사료가격 인상과 더위로 인한 산란율 저하, 폐사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되어줄 것인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등 질병이 언제 농장에 급습할지 등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양계를 해야하는 것이 현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어려운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계업을 천직으로 알고 채란업을 묵묵히 경영하고 있는 배로농장(대표 나상화, 52)을 찾아 고품질의 계란생산 방법 등 농장경영 현황을 들어보았다.



두배로 키우라는 뜻으로 배로농장

나상화 사장은 지난 1988년 18년동안 군생활(대위 제대)을 마치고 매형이 운영하는 12,000수 규모의 농장을 인수하여 채란업에 첫 발을 들여 놓았다.

평소에 군제대 후 축산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사업을 물색하던중 은어우 사육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으나, 국내 실정으로는 판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계획을 포기하고, 당시 축산업 중 비중이 높고 발전속도가 빠른 양계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농장 이름도 배로농장으로 짓고 업을 시작하였다. 농장 이름을 배로농장으로 짓게 된 것은 처음 농장을 시작할 당시 "삼촌 양계를 해서 두배로 키우세요"라는 조카의 말을 듣고 배로농장으로 명명하였으며, 당시 12,000수 이던 것을 현재 25,000수 규모로 늘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지난 일을 회상하였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에 위치한 배로농장의 규모는 현재 3개동에서 25,000수가 산란을 하고 있으며, 후보계군을 위해 자체 중추농장에서 병아리를 직접 사육하고 있다. 처음 12,000수를 사육하면서 생물을 다루는 양계업이 생각보다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양계인들로 부터의 도움은 물론 스스로 해법을 터득하면서 지금은 채란업 경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단열에 중점을 둔 계사구조

1997년에는 기존의 시설이 노화되고 자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같은 장소에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3개동(1호, 2호, 3호 계사)을 신축하였다. 계란집란실과 보관창고도 1호계사 앞에 마련하여 3개동에서 나오는 계란을 컨베이어 시설을 통해 계란집란실로 모일 수 있게 설계하였다.

나사장은 당시 무창직립식계사가 외국으로부터 인기리에 수입되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각종 자금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규모화 보다는 가족단위의 양계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굳이



농장과 농장 사이에 연결된 계란 콘베이어 시스템

직립식 보다는 국산 A형케이지로하되 원활한 환기를 위해 3단 또는 4단으로 내부시설을 설계하였다. 3단으로 설계한 1호계사의 경우 4단의 2, 3호계사들 보다 훨씬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계사의 단열을 위해 계사 내부에 우레탄을 두껍게 처리하고 윈치 커튼을 이용해 단열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환기를 위해서는 계사 중앙으로 대형팬을 설

치하고 중간중간 보조팬을 달아 내부 환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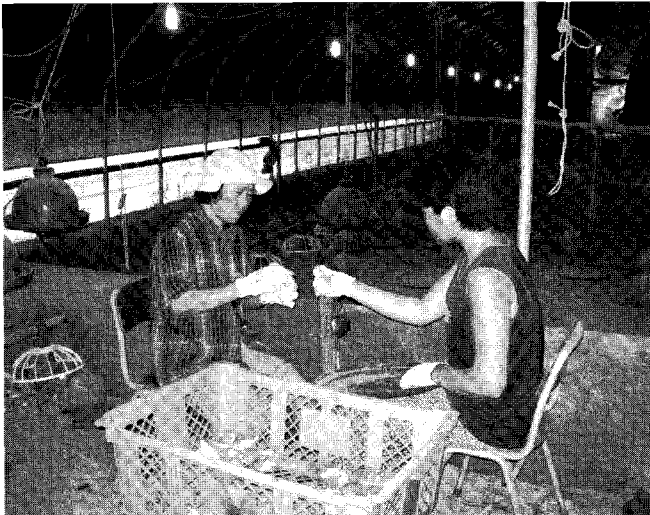
자체 육성농장에서 육추, 방역철저

나사장은 농장에서 항상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자체 육성사를 통해 계군별로 계획을 세워 병아리를 육성하고 있다. 비록 평사에서 육추되고 있지만 병아리 사육단계가 성계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사양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물론 ND, 티푸스, 감보로를 위주로는 백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다.

방문당시 7일령된 병아리에 대해 부리자르기(디비킹)가 진행되고 있었다. 보통 중추는 80일령에 케이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사료는 인근 축협을 통해 OEM방식으로 사료를 주문하여 급이를 하고 있다.

배로농장은 방역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번 국내에서의 AI발생으로 군과 축협 등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주고 있으며, 소독약도 무안지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질병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계사 주변에는 생석회를 뿌려 질병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거래 상인도 양계업을 시작할 때부터 거래하던 상인과 거래를 할 정도로 신용을 바탕으로 농장경영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계분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배로농장은 현재



병아리를 직접 육추(7일령 된 병아리에 부리자르기(디비킹)을 실시하고 있다.



계란집란실 모습

계분업자가 주기적으로 계분을 처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도 등 인근 지역에서 계분비료가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계분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그동안 무료로 계분을 처리하던 것을 계분값을 지불하면서 처리할 입장에 놓이게 되어 농장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내비쳤다.



계사 앞에서 나상화 사장과 부인 강영엽 여사

최고의 계란 만들기에 주력

배로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난백고와 난황색도가 높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등 상품성이 좋아 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심지어 이를 먹어본 소비자들까지 전화가 오는 등 맛과 품질 면에서 어느 농장 못지 않은 상품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란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주위에서는 상품란으로 판매하라는 권유가 계속 해서 들어올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장은 계란품질 향상을 위해 농협사료를 OEM방식으로 들여오다가 하면 여기에 알팔파를 발효시킨 보조사료원료를 사료와 2.5%비율로 섞어 급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료를 먹은 닭들도 자연에서 자란 닭들처럼 벼슬이 윤기가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나사장은 목초란으로 상품화 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천직, 포기 못하는 양계업

나사장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양계업을 하면서 두차례의 위기가 있었으나 양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위기는

현재 농장을 경영하면서 운남면에 3남매가 5만 수규모의 채란업을 하면서 집단화를 꿈꾸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1994년 계사 전체가 화재로 전소되면서 그 꿈도 접어야 했으며, 두 번째 위기는 IMF를 겪으면서 보증을 섰던 것이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1억가까이 피해를 보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러나 양계업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의지를 갖고 일어나 현재의 배로농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배로농장은 금년 여름도 무척 어려운 한 해였다. 아무리 환기를 하더라도 외부의 기온이 올라 유입되는 공기는 어쩔 수 없었다. 35℃를 넘는 온도가 연일 계속되면서 폐사발생은 없었으나 닭들이 사료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포깁시스템을 도입,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광주전남지회 무안지부 이사로 활동하면서 지부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 나사장은 부인 강영엽(50) 여사와 함께 닭을 관리하면서 우리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계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양계**

(취재 | 김동진 차장 dj@poultry.or.kr)